

## 4천톤급 한국형 신형 구축함 건조 착수



신형 구축함 모형

**국방** 부는 4천톤급 신형 구축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6년간 3천억원을 투입, 2단계 신형 한국형 구축함(KDX-2) 건조작업에 착수하여 2000년대 초에 진수시킬 계획이다.

KDX-2는 전장 1백50m, 최대속도 30노트(55km), 항속거리 7천4백km, 승무원 1백70여명으로 현재 해군주력함인 1천5백톤급 호위함보다 3~4배 높은 작전능력과 전투력을 갖추고 있어 연안해군 수준에서 벗어나 大洋해군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010년까지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이 번갈아 건조하게될 신형 구축함은 현재 해군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함대공 및 대잠미사일 격추용 기관포 등을 장착할 계획으로 있어 기존 호위함보다 전력 이 대폭 보장된다.

먼저 수직발사장비에서 발사되는 시 스파로우(Seasparrow) 艦對空미사일은 최대 15km 밖에 떨어져 있는 적항공기를 격추시킬 수 있으며, 아스록(ASROC) 對潛미사일은 10km 밖의 적 잠수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

신형구축함은 또 함정에 접근하는 적이 발사한 對艦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네덜란드제 '골키퍼' 30mm기관포와 사정거리 1백여 km인 하푼 艦對艦미사일 8기, 링스對潛헬기 및 인공위성에서 직접 정보를 받아 작전을 펼 수 있는 첨단 지휘통제장비와 전자전 장비를 갖출 예정이다.

국방부와 해군은 또한 신형구축함 사업을 추진 하면서 보다 나중에 건조될 구축함에는 사정거리 70km의 스탠다드 艦對空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군은 수년전부터 3천톤급의 한국형 구축함(KDX-1) 건조사업을 추진, 오는 8월에 1번함이 진수되어 오는 98년 취역할 예정으로 있다.

한국형 구축함은 시 스파로우 함대공미사일 등 신형구축함과 비슷한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對潛, 對空작전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함정 전장도 20m가량 짧다.

## 전천후 지대공 미사일 天馬 개발 성공



순수 국내기술로 그동안 우리 軍의 취약부분으로 지적되온 저고도 비행 적기 요격용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天馬(Pegasus)로 명명된 이 미사일은 비행속도 마하 2.6, 유효사거리 10km로 12kg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98년 부터 양산을 시작해 실전에 배치할 계획으로 30mm 자주대공포 飛虎(사거리 3km)와 함께 대공방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번 天馬 개발 성공으로 미국의 「어벤저」 구매 압력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